

포털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서비스 책임자 오찬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기능에 따른 책임을 생각할 때

반갑습니다.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문화를 포함해 여러 분야를 소통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포털이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소통 방식을 두고 그것을 미디어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곤란했는데, 근래 포털사이트를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가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말이 매우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매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에 대해 많이 얘기하면서,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기능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언론과 다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흔히들 언론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권력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가 무한대의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한 마디로 대답하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에서의 민주주의가 글자 그대로 시장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고,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핵심도 역시 시장경제와 유사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치의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주권이 정치의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던 시절엔 자유, 평등을 내걸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거는 국가주권 사상에 기반한 정치이념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만이 비로소 민주주의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지면 민주주의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회정치가 경제의 영역 즉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 등의 다양한 가치가 지향된다면 그것이 참 민주주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전략의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현재의 사건과 오늘 일이 5년,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대학을 들어갈 내 손녀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지만 전략적 행동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입이 아니라 미디어 세계에서 전부 결정나게 됩니다.

산업으로서의 포털사이트에 매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었고, 산업으로서의 포털사이트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찾아서 도움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비대위의장이 ‘밥이 하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넓혀서 말하면 경제가 모든 것의 토대라는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산업입니다. 경제에서 개별산업은 잘 다루어지지 않지만 승부는 개별산업에서 납니다.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면서도 지나오고 보면, 결국 조선이 세계 몇 위, 자동차가 세계 몇 위냐가 중요하게 남게 됩니다. 반도체, IT, 가전, 통신기기, 통신 인프라, 통신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가 세

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항공 산업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항공 산업을 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성취해 놓은 업적은 합리적으로 기업이론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란 어쩌다 불가사의하게 이루어지는 한두 개를 말하는데, 한국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국민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항공산업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항공 산업에 대해 회의가 많았고 지원이 적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밀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믿는 구석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것도 잘 해내더라는 것 하나입니다. 지금 이미 T-50까지 만들어놓고 누가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뒷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정통부장관 계십니다.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